

지난달 잠시 대만 台北市를 다녀왔다. 4박5일의 짧은 일정이었기 때문에 서두른 점도 없진 않았지만, 그런대로 走馬看山격은 한계 아닌가 생각된다.

대만에 대한 나의 관심은 평소에도 적진 않았지만 직접 방문할 기회는 좀처럼 오질 않았다. 사실 그동안 웬만하면 유럽, 그리고 일본의 방문에 우선권을 주어왔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오히려 동료들중에서도 중국대륙을 방문하고 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 대만에 대한 관심(서열)이 더욱 밀려 나는 느낌이다.

물론 말을 더 늘리자면,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한 소련권, 헝가리, 폴란드를 중심으로 하는 동구권이 추가되고 있는 마당에서는 더욱 더 그러하다(나 역시 그런 기회를 탐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사실 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어느 나라 보다도 중요한 나라이다.

함께 NICS의 그룹에 들어 성장하는 小龍의 대열에도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함께 日帝治下를 경험한바도 있어 그 과정과 그 뒷 마무리가 좋은 모델이 되겠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만에 들어가서 보려고 한 것중 가장 관심있었던 것은 일본과의 戰後관계 재정립 상황이었다.

대만의 타이페이(台北)市도 여타 국가의 수도처럼 계속 성장하는 국제도시이며 대도시였다. 대도시의 패턴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서울이 그 모델이지만 -중요 CBD에서의 고층건축물 숲, 그를 위한 재개발이 주종을 이루는 형태인 것이다. 그러나 서울과는 달리 台北市의 중심가는 별로 개발(의도)된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어쩌면 정제된 도시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 조차 갖게 될 정도였다. 總統府를 중심으로 하는 관아가 日帝下(그들은 日據下) 그대로이고 오히려 녹지공간, 기념공원이 즐비하게 추가되어 있는 바람직한 모습이었다. 제국대학 시절의 타이페이 의과대학도 인상적이었다. 그

소중한 歷史意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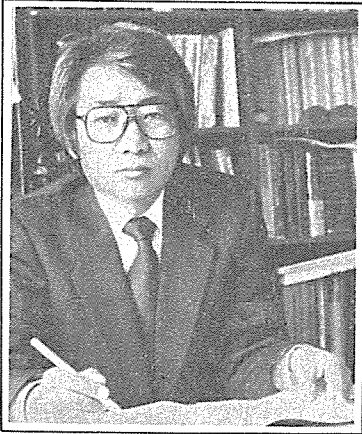
金 晶 東

(목원대 건축학과 교수)

병동의 주요 복도는 도시에 제공되어 거리화된 느낌이었다. 타이페이 대학도 마찬가지였다.

이국적인 야자수의 가로수라든가 넓은 보도 및 차도는 풍요롭기조차 했다. 물론, 불결하고 음침한 분위기는 뒷골목 도처에서 만날 수 있었지만 그것은 인위적 시간과 환경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라 생각돼 그렇게 큰 문제거리로 느껴지질 않았다.

그들은 과연 “일제치하를 극복했는가”하는 질문점은 백화점, 음식점, 그리고 서점에서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백화점은 거의 일제상품으로 메워져 있었고, 책, 음악의 종류도 일본 것 그대로였다. 오히려 그것들은 정부에 의해 오픈(조장)되는 느낌마저 들었다. 음식점에서 기모노를 입은 서비스걸의 모습을 보기도 했는데, 그것은 나의 시각으로는 不可解였던 것 중의 하나였다. 그들도 식민지를 겪었는데 -“우리는 대륙의 기질을 갖고 있어서 그 정도는 별로 문제 삼지 않는다”는 대만 학자들의 대범한(?) 견해도 놀라웠다. “비록 대만이 지금은 섬나라지만, 그 큰 대륙은 우리들의 원천으로 남아 있



있기 때문에 그리 큰 문제가 될 수 없다” “수 많이 발흥되었던 주변국가들이 중국의 심장부(中華)인 수도에만 들어오면 녹아버렸었다”는 그 과거의 스케일이 그들의 자존(프라이드)을 내세우는 것 같았다.

“일제하 50년 이래왔자 긴 역사속에 작은 점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다.

대만에서의 본격적인 연구 모임은 중화민국 近代建築연구회 주최로 5월21일 타이페이대학에서 가졌다.

필리핀,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동참했다. 일요일 아침부터 열린 세미나는 오후 늦게까지 강행군이었다.

대만의 李乾朗교수와 郭中端선생이 회의를 이끌어 주었다(마침 두분 다 1949년생이었다). 漢字화된 세미나여서 그런지, 그리 어렵게 느껴지진 않았다. 필리핀만이 영어권이어서 동떨어진 느낌이였다.

일본 東京大의 후지모리(藤森照信)교수(1946년생) 연구실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파워풀한 활동력과 노력으로 회의를 리드해 나갔다.

國力の 뒷받침이기도 하겠지만 그들 자신의 능력으로 그 분야에서 최고봉으로 올라가는 학자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새삼 부럽게까지 느껴지기도 했고, 자괴심도 들었다.

나는 우리의 젊은 연구자 尹仁石선생과 필리핀인 Dakudao선생과 함께 제3국인으로서 많은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항구도시 단수이(淡水)에서 본 紅毛城(Fort Santo Domingo 1629) 보존상황은 새로운 모델 케이스로 도입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의 강화도, 인천항에도 그와 유사한 현장들이 많았었는데…….

대만의 여러 도시들은 그들의 전통적인 건축(대륙에서 온)과 원주민 高砂族이 뿌리 내린 버나쿨라, 식민제국(네덜란드, 스페인 그리고 일본)으로 부터 건너온 건축이 서로 앙상블을 이루며 그대로 병립되어 있었다.

郭中端선생은 이런 말을 들려준 적이 있다. “……대만에 있어서 일제시대 50년간은 좋게 말해서 근대화 건설기였고 나쁘게 말하면 중국 문화의 청산기였다. - 일제 초기 그들은 중국문화와 타협했다. 청나라시대에 잔존해 있던 관습과 제도를 지속시켜 나가면서 기존의 건물을 이용했었다. 차츰 일제건축화되어 갔지만……”

우리의 상황과 대만과는 오늘의 시점에서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지금 모든 분야에서 너무 조금하게 서두르고 있지 않는 것인가. 지금 정말 서둘러야 할 것은 원칙론이 아닌 세부각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발전시켜야 할 것은 내버려두고 우리는 너무 큰(실제로 해결하기도 어려운)것에 전체가 메달려 있는 것이 아닌가.

중국의 천안문 앞에서, 대만의 총통부 앞에서 또 우리나라의 여러 곳에서도 시위는 계속되고 있는데, 착잡한 생각만이 뇌리에 아른거렸다.